

KCC-현대, 소액주주 대책 마련하라!

3월3일 기한 앞두고 성실 답변 촉구 ... 최대실적 준하는 고배당 요구

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모임이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권 분쟁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대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지지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모임은 3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24일 발송한 제2차 공개질의서에 대해 현대와 KCC가 정해진 기한인 3월3일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기를 촉구하며, 특히 지배구조 개선안과 소액주주 피해 대책안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다면 소액주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지반대 운동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모임은 차등배당 방식 등을 통해 2003년 사상 최대실적에 준하는 고배당을 실시해 줄 것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요청했다.

소액주주모임의 주장은 기존의 지지 측 선정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앞으로 소액주주의 거취가 주목된다.

앞서 소액주주 모임은 2차 질의서에서 현대 측에 ▷해외합작 추진계획 공개 ▷범 현대가 중재안 수용여부 ▷현정은 회장의 경영능력 등에 대해, KCC에는 ▷공개매수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인용 시 대책 ▷처분 명령에 따른 주식 매도계획 ▷전문경영인 프로필 공개 여부 등에 대해 물었다.

또 양측 모두에 ▷집단투표제와 전자·서면 투표제 및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입장 ▷경영권 분쟁 종료 시 소액주주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소액주주모임은 2차 공개질의서에 대한 양측의 답변서를 토대로지지 측을 선정하고 3월 하순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Chemical Journal 2004/03/03>